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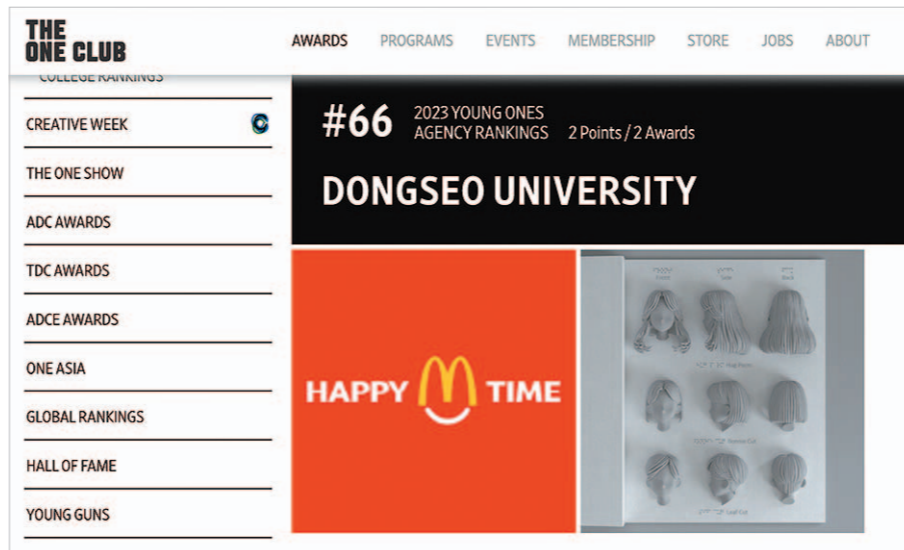
미국 광고제 'Youngs Ones' 수상!

GLOBAL CREATIVE COLLEGE RANKING 66위 달성



Young Ones ADC 신청 사이트

사진출처 - The One Club for Creativity 사이트



학생들의 작품

사진출처 - The One Club for Creativity 사이트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광고제 중 하나인 The One Show의 주관기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교육 및 광고 단체인 The One Club for Creativity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GLOBAL CREATIVE COLLEGE RANKING에서 우리 대학이 66위에 올랐다.

The One Club은 광고의 우수성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미국의 버라이어티 단체로, 미국과 광고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을 모아 영감과 창의성을 뿜어내는 글로벌한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있다.

아트 디렉터,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구성된 One Show 국제 심사위원단은 약 60개국에서 광고, 디자인, 미디어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8,000개 이상의 출품작을 심사해 500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2021년에 이어 지난 2023년에는 Young Ones ADC 부문에서 우리 대학의 2개 팀이 수상한 바 있다. 디자인 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의 융합 결과물들이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대학의 첫 번째 작품은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한 'Happy MC TIME'이다. 최은진, 장지수, 임수빈, 김동우 학생이 참여했다. Happy MC TIME은 외로운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맥도날드 패키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햄버거를 먹으며 영상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화면에 맥도날드 로고를 완성하면 디지털 쿠폰을 얻을 수 있다. 모두가 외롭지 않은 Happy MC TIME은 즐거운 식사를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두 번째 작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제품 디자인 광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Touchable Hair Catalog'다. 강동호, 한수정, 김준현, 김태환 학생이 참여했다. 시각 장애인들은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행인이거나 부딪히거나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많아 개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알기가 불편하다. 'Touchable Hair Catalog'는 장애로 인해 헤어스타일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3D 모형 책이다.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앞, 옆, 뒤를 만지며 머리 모양을, 점자를 통해 머리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시각 장애인들이 외모 꾸미기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자.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은 자신의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상작들을 지도해온 류도상, 문미경 교수는 "학생들 수업의 결과물들이 미국의 권위 있는 'The One Club'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 우리 학생들의 기량을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이로 인해 문화콘텐츠 특성화를 지향하는 우리 대학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인 계기가 된 점을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 2023년 독일 '레드닷 어워드(Reddot Award)'에서도 총 11개의 워너(Winner)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기도 했는데, 이로써 우리 대학은 4년 연속 'Best of the Best'를 수상하고 지난 9년 동안 총 39개의 작품이 워너로 선정되는 대기록 갱신 등, 글로벌 랭킹 66위에 걸맞은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은 뉴미디어관 2층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했다. 성과들을 기념하는 이곳은 후배들에게 동기부여와 영감을 전하고자 한다. 클리오 어워즈, 레드닷의 수상실적 내역과 학생들의 사진, 작품을 구경할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자.

김소현 기자 mylifec0336@gmail.com

정보보안학과생들은 주목!

제14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 입교식 성황리 개최



제14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입교식 단체사진

지난 4월 3일, 제14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입교식이 이뤄졌다. 이는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소프트웨어중심사업단과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입교식에는 정항기, 이훈재 책임교수, 장원태 학과장, 이상봉, 이용민 변호사, 이승열, 도주원, 박은경 이경미, 13기수에는 전성금 회장, 강민경 부회장, 유지영·김태형 총무가 참여했으며, 이번 14기 등록생에는 남상호·하시우 기업인 공동대표, 자영업자, 탐정협회, 재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본 교육과정은 4월 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18시 30분~20시 30분까지 10회차 융합식 대면강의로 진행되며, 산업보안 및 영업비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산업기밀보호전문가(산업탐정)를 양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정은 △디지털산업권보호 △영업비밀 법적보호절차 △과학수사(증거수집) △디지털 포렌식과 네트워크보안 △산업기밀유출 보호실무 △블록체인 활용법 △탐정학개론 △탐정실무 △항공보안 등 융합 방식의 수업으로 주어진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과 실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 사례 분석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강의 전담은 주로 우리 대학의 교수 및 전문번호

수(관련 박사) 등이 강의를 맡게 됐다. 정항기 이사장(협회 소속)은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14기 입교를 축하드리며,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본 과정 전문 나옴이 없이 잘 수료해서 산업기밀보호전문가로서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훈재 책임교수(정보보안학과)는 "산업기밀보호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교육을 통해 전문기술 활용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제산업기밀보호관리사(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은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정보보안학과에서 모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해당 과정의 교육비, 자격증비 일체 무료 지원하고 있다. 국제산업기밀보호관리사(급) 자격증에 관심있는 학우들은 매년 3월 새학기를 노려보자.

정보보안학과에서는 수많은 보안 인력 양성에 계속해서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은영 기자 indmsud@gmail.com

VR/AR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 보육 기관 선정



VR/AR 기술을 체험중인 학생들



교내 전경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보육 기관 공모'에 우리 대학이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11월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VR/AR 스타트업 특화 예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은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 발굴·육성,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한 예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VR/AR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은 기술적인 능력과 비즈니스 지식을 함께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VR/AR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마케팅 및 판매 전략, 프로토타이핑 및 테스트, 조직 강화와 리더십 등의 핵심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 대학은 최근 3년간 창업지원 관련 지자체 및 중앙부처 사업을 8건 수주해 40억 원 예산을 지원받아 창업 기업 123개사를 육성했다. 이번에 선정된 'VR/AR

스타트업 특화 예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콘텐츠 분야 예비 창업자를 모집했고 10개 팀을 선발해 11월 말까지 창업 보육 프로그램인 창업 교육, 전담 멘토, BM 고도화, MVP 제작 등을 지원한다.

창업 교육은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하여 비즈니스 모델, 시장 조사, 마케팅 전략, 자금 조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다. 전담 멘토링은 전문가나 경험이 풍부한 멘토들로부터 개별적인 멘토링이 제공된다. 멘토는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해 예비 창업자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BM 고도화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의 가치 제안, 수익 모델, 고객 세그먼트(고객

를 비롯한 특징에 따라 분류) 등을 검토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MVP 제작은 최소 기능을 구현시켜 높은 시제품 제작이다. 초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MVP를 통해 고객 피드백 수집, 제품 개선 방법을 배우며,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창업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협업 기회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견할 수 있다. 창업 보육 프로그램은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창출과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도움이 되며,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책임자인 컴퓨터공학과 이현동 교수는 "동서대학교 특성화 분야인 콘텐츠 중심의 창업자 지원을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정주형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황기현 산학협력단장 겸 LINC 3.0 사업단장은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않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학우들은 이런 프로그램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미리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주체되는 창업 경진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동아리 등을 통해 학업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예비 창업자가 될 학우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학우들은 학교에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김재원 기자 jw03031121@gmail.com

불필요한 플라스틱 이제는 안녕~!

장재국 총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챌린지에 참여하는 장재국 총장

우리 대학 장재국 총장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3월 15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동서대학교도 함께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동참했다.

장재국 총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여 지속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전 구성원들이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환경부가 지난해 8월 16일부터 범국민 대상으로 추진한 실천 운동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을 고려대 에스케이(SK) 미래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운동의 핵심은 다음의 10가지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 사는 것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장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불필요한 비닐 쓰기 않기 ▲중고 제품/재활용 제품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 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신선식품 주문할 땐 다회용 보냉 백 사용하기

우리 대학은 지난해 3월부터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교내 위원회와 외부 자문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동서대만의 단계별 ESG 경영 모델을 만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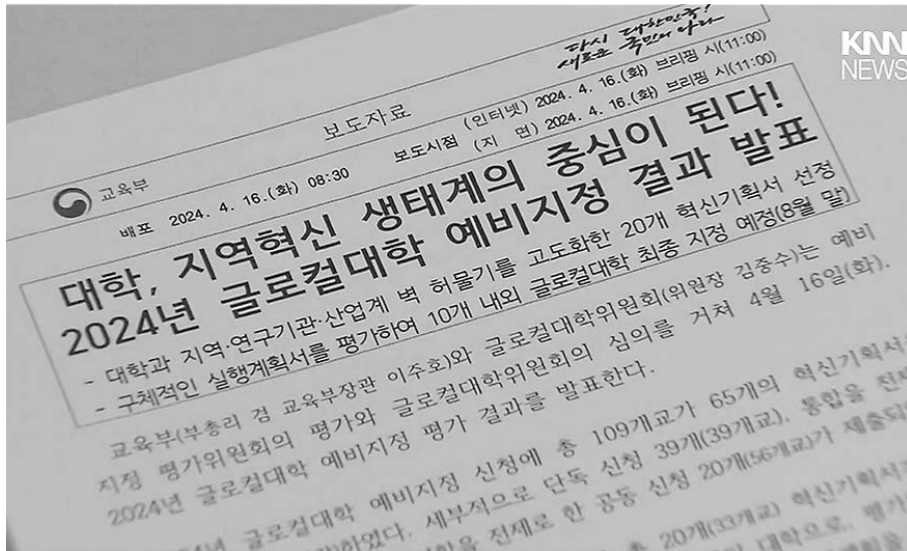
지속해서 이어진 이번 캠페인도 환경과 ESG에 관한 관심이 장재국 총장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더욱 관심이 가해지는 부분이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에서 제시한 10가지의 생활 습관은 일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니 우리 대학 학우들도 평소 애용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류길환 기자 jyw8284@gmail.com



# 글로벌대학 사업에 재도전하다!

##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대학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 보도자료

▶사진출처 - KNN뉴스

부산에서는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연합이나 통합의 방식으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글로벌대학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벌(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글로벌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이다. 이는 '글로벌대학30'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당 사업은 연합이나 통합의 형태로 지원되는 대학만 최대 15개 대학에 이른다.

정부는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통합을 전제로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2027년까지 최대 1,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기 사업도 선정된 뒤엔 최소 1,00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간 공동선선 형성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우리 대학과 동아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연합대학 형태로 '글로벌대학 2기' 사업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공식적인 협약식 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부터 관련 협의

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학 장재국 총장은 "문화콘텐츠와 공대에 각각 특화돼 있는 우리 대학과 동아대가 협력하면 선정 과정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글로벌대학 공모에는 '단독' 또는 '연합대학'이나 '통합대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참가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연합대학' 유형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에 따라 경성·부산외대, 동명·신라대에 대동대, 동의과학대 등 전년도 7곳도 글로벌대학 공모에 연합 신청을 하게 됐다. 또한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통합' 신청하기로 했으며 동의대, 영산대, 부산가톨릭대는 단독 신청이 진행됐다.

올해 '글로벌대학30'은 지난 3월 22일 전국적으로 공동 신청을 포함해 109개 대학 65건이 접수됐고, 부산지역은 18개 대학의 9건이 접수돼 예비 지정 심사를 받았다. 또 이번 예비 지정 평가에서는 전년도 미지정된 5개 기획서를 포함해 총 20개 혁신 기획서가 선정되기도 했다.

대면 심사는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기반으로 혁신 의지와 혁신전략의 적정성 등 20분 가량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온



▶예비 지정 소감 발표중인 장재국 총장

▶사진출처 - KNN뉴스

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연합대학의 경우 연합 협의 구성·예로점, 필요한 규제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짚어줬다는 후문이다.

그리하여 지난 4월 16일 교육부에서 '2024 글로벌대학30' 예비 지정 결과가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11개, 통합 3개, 연합 6개이며, 대전·충청 지역에서 가장 많은 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전국 20건이 선정됐으며, 부산은 '동아대·동서대', '동명대·신라대' 연합모델 2건이 예비 지정 선정됐다.

특히 우리 대학과 동아대의 연합은 전국 최초 수의 창출형 통합 산학협력단 운영을 내세웠다. 지속 가능한 수의 창출형 통합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익을 연합대학에 재투자하고, 4대 특화 분야 ▲에너지 기술(테크) ▲휴먼케어 ▲예술(아트)&디자인 ▲B-유산(헤리티지)을 중심으로 개발했다. 또 이번 예비 지정 평가에서는 전년도 미지정된 5개 기획서를 포함해 총 20개 혁신 기획서가 선정되기도 했다.

예비 지정대학은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간 지자체, 지역산업체 등과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글로벌대학위원회'와 교육부의 분지정 평가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과가 10개 내외로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에는 예비 지정대학에 대해 특화 분야 맞춤형 글로벌대학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세부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발굴하고 대학별 자문 지원 등 분지정 평가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장은 "예비 지정대학이 분 지정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대학 선정이 2026년까지 계속되는 만큼 이번에 지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도 지역발전 연계 전략과제 개발 및 자문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 지정을 넘어 해당 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 부산체고와 손을 잡다!

## 스포츠 계열의 발전을 위한 고교와 대학 간의 협약



▶우리 대학과 부산체고가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우리 대학 미래 커리어 대학, 스포츠 레저산업학과, 운동처방학과, 부산체육고등학교(이하 부산체고)는 우리 대학과 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3월 28일에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양교 공동의 현실성 있는 연계와 실습 기자재 및 시설 활용, 인적자원의 교류와 연수 등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진행됐다.

부산체고는 부산 영도에 위치한 우수한 전통과 명성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다. 학생들에게 체육 전공뿐만 아니라 학문적 역량도 함께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체육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교육에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체육 능력을 키우는 데에 특히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팀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 국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체육 및 교육 분야와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두 교육 기관이 함께 연구, 교류, 현장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구한다. 학생들은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받으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학과들이 스포츠 및 레저 산업

분야에 관련된 학문 및 실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당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교육 기관들 역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체육 문화 활성화와 교육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박병주 미래 커리어 대학 학장은 "지역 사회 엘리트 체육의 요람인 부산체고와 협업하게 돼서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있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협약이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있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협약이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있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스포츠 레저산업학과는 지난 3월 8일에 해운대구 송정동 체육회와 송정서평 학교와의 3차 간 지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협력은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진로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학문적 발전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기자  
jw3031121@gmail.com

# 지역 기업과 힘 합쳐 커피에 부산을 담다!

## 부산의 맛과 멋, 빛과 심을 담은 셀러브리 : 빈



▶왼쪽부터 정형용 대표, 최소현 대표, 박주환 대표

▶사진 출처 - 부산일보



▶이전에 제작했던 '셀러브리 : 티'의 패키지 사진

우리 대학 시각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이번 협업을 통해 커피에 디자인을 담은 부산 관광 기념품 제작에 함께했다. 부산 기업, 우리 대학, 스페셜 기업이 유기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결하는 부산의 맛과 멋, 빛과 심을 주제로 부산을 나타내는 관광 기념품으로 탄생했다.

지난 4월 19일 부산 친환경 커피·차 붐 부 전문 제조기업 (주)코아트는 최근 부산 관광 기념품 '셀러브리' 세 번째 시리즈 '셀러브리 : 빈'을 출시했다. 부산의 맛과 멋, 빛과 심까지 4가지로 주제로 만든 커피 드립백이다.

우리 대학 시각디자인 전공(김수화 교수) 학생들(장아라, 한지연, 박수연, 박재이, 한효정, 장진호, 박시은)이 산학협력력을 통해 16종의 분부 디자인에 참여해 이번 기획에 의미를 더했다. 코아트와 우리 대학 학생들과의 협업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앞서 같은 '셀러브리' 시리즈 중 하나로 차와 입욕제를 출시했다. 디자이너가 될 학생들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기업과의 협업은 의미가 크다.

부산을 대표하는 스페셜티 커피 기업 2곳과 협업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산진구 전포동의 '트레저스', 금정구 장전동의 '코스피어'가 참여했다. 코아트의 최소형 대표는 "평소 두 회사 커피를 좋아하는 팬이어서 부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커피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부산의 맛, 멋, 빛, 심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트레저스와 코스피어가 각각 커피 블렌딩 1종, 싱글 오리진 커피 1종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트레저스는 침과 맛을 구현했다. 트레저스 박주환 대표는 "제안을 받고 처음으로 시즈널 블렌딩(계절 한정 블렌딩 커피)을 만들어 보람이 있었다"며 "인도 육성 커피와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2종류를 더해 총 3종류의 커피를 섞어 겨울밤과 어울리는 느낌으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한 종류의 원두만 쓴 싱글 오리진 커피로는 에티오피아 원두(에티오피아 시다마 트와루 워시드)를 선택해 누구나 먹기 좋은 대중적인 느낌과 '부산의 심'을 드립백에 담았다.

코스피어는 '빛과 멋' 하면 떠오르는 부산의 이미지를 커피로 재현했다. 코스피어 정형용 대표는 "부산의 멋을 생각했을 때 식문

화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면서, "부산의 식문화 하면 임팩트가 큰 감칠맛이 연상돼 케냐 커피(케냐 티라쿠 AA 워시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부산의 빛에서 광안대교를 연상했고, 광안대교처럼 여러 색깔을 가진 복합적인 커피인 에티오피아 커피 2종류를 사용해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학 시각디자인 전공생들이 부산 패키지 전문기업 ㈜코아트,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 수업을 통해 런칭한 브랜드 '셀러브리 : (Celebri :)'는 계속해서 뜨거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학 시각디자인 전공(김수화 교수)가 이끄는 클래스셀링 수업팀은 지난 2022년부터 부산의 커피·패키지 전문 회사인 ㈜코아트와 함께 부산 관광문화상품 브랜드 '셀러브리 : 티'를 런칭했다.

첫 번째 브랜드였던 '셀러브리 : 티 (Celebri : tea)'는 MZ세대의 시선으로 본 부산의 하루를 아침, 한낮, 오후, 저녁 4가지 시간대로 나눠 부산의 명소와 연결했다. 티 본 품에는 창문을 연상시키는 소박스 속에 레트로한 플라로이드 감성 디자인의 티백 4종을 담아, 가고 싶은 부

산의 이미지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두 번째 아이템인 '부산웰컴키트'는 부산을 행복하게 여행하자는 관광 기념 기프트 박스로, 4가지 시간대별 스토리와 티 이야기가 담긴 보물 상자 콘셉트였다.

지난 해에 제작했던 셀러브리 : 티(Celebri : tea)의 인기는 대단했다.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드립 티로 블로거와 카페에서 입소문을 탔다.

또한 부산디자인진흥원 1층에서 15일 동안 진행한 팝업스토어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부산시 청년 지원 통합 플랫폼인 '청년 G 대 부산 청년 플랫폼'의 개편 기념 이벤트 '2022 부산 청년 행복 박스'의 구성품으로 선정돼 한 달 만에 약 1,000세트 판매 돌파를 기록했다. '부산 웰컴 부산 키트'도 신규 출시 후 약 1,000세트 판매 달성하며 신규매출 약 5,0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지역관광 선물 아이템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이 제품은 현재 네이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오현지 기자  
glok779@gmail.com

# 청년들이여 꿈을 키워라!

## 우리 대학의 '부산창업가꿈'을 소개한다



▶우리 대학에 위치해 있는 부산창업가꿈

우리 대학은 창업에 준비하는 학생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공간인 '부산창업가꿈'이 있다. 부산창업가꿈에서는 창업과 주거 공간을 제공해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으로 청년의 지역 내에서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는 시설개선비 지원, 사상구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우리 대학은 창업 공간 현물 지원 등 여러 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지난해 6월에 개소한 우리 대학 창업공간에 입주한 '브로코스의 경우 우리 대학의 창업 보육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플라이 아시아(Fly Asia) 2023'에서 '부산 이니시티브'를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기존 창업시설과 달리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매니저를 상시 상주하도록 해, 투자자 연결, 특허출원 지원, 지역 주민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관리지원 등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가능했다.

부산창업가꿈은 부산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담은 어린이집이나 버려진 주택이 새롭게 고쳐져 청년이 먹고 자면서 창업을 꿈꾸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6월 우리 대학에 개소했으며 현재 부산 창업경쟁대회에 2호점을 열었다. 현재는 2개소를 추가 선정해 부산진구 동의대와 공공플랜(동구)을 지을 폐공가에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5호점 대상으로 해운대구 반송동에 생길 창업공간은 오는 12월부터 운영하기로 계획했다.

창업공간은 부산 사상구 주례로 47 우리 대학 벤처 랩 (1층~3층)에 있고, 모집 기간은 상시 모집하는 중이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자만 신청받고 있다. 선정하는 과정에는 사상구 거주자를 우대하는 사항이 있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창업 공간에는 벤처 랩 이외에도 개별보육실 5실(5명), 공유오피스 1실(8명), 창업 주거 공간은 아파트 6채(12명), 공유오피스 3실(5명)로 뽑는다.

입주 혜택으로는 회의실, 멀티 룸 등 창업 인프라를 무상 제공한다. 그리고 창업 보육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취득비를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 및 안내문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주 문의도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가능하다.

오현지 기자  
glok779@gmail.com



# 해외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우리 대학

‘해외 취업 연수 운영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대상 수상 사진

우리 대학이 지난달 29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개최된 ‘해외 취업 연수 운영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노동 고용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 해외 취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연수사업의 성과 확산과 품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참가대상은 지난 2022년도 해외 취업 연수 과정 운영기관 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으로 한정됐으며, 최종 5개 수상기관이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우리 대학은 다양한 해외 취업 과정을 개설하고 체계적인 연수생 관리를 운영해, 2022년 취업률 96%를 달성하고, 개시 인원 전원이 중도탈락 없이 수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SAP(Study Abroad Program)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의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교육 및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해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료, 항공료,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해준다.

또한 GELS(Global Experiential Learning Sites)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스

스로 세운 학습계획에 따라 강의실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해외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항공료, 체재비, 장학금을 지원해주며, Campus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일 3국 학생이 3개 국가에서 1년씩 돌아가면서 지내며, 서로의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러한 차별화되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기틀을 확보했다. 추가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K-move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달성했다.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대학 해외 취업 지원팀(K-Move스텝)은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과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부서이다. 학생들은 해외 인턴십을 통해 해외 기업에서 일하면서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해외문화도 체험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2004년부터 해외 인턴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20개국으로 1,000명 이상을 파견했다. 이러한 공로로 2016년에는 국무총리상, 2019년에는 청년 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에 선정, 2021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아 해외 취업 분야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참여 사진

해외 취업 지원팀이 현재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정부 해외 취업 지원사업(K-Move 스텝)추진 해외 취업 예비자를 위한 해외 취업동아리 교육, 해외 취업 관련 교과목 운영(해외 취업과 진로, 해외 현장실습)이 있다.

지속한 해외 취업 지원팀의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 해외 취업 연수사업 K-Move스텝’ 5개 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대학 최초로 K-Move스텝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올해로 12년 연속 선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과정 5개 과정 중 4개 과정이 우수과정으로 승인받았다. 미국 패션 스페셜리스트, 그래픽디자이너, 무역 물류 프런티어, IT융합 엔지니어 등 우수과정 4개, 그리고 일본 IT 엔지니어 일반과정 1개가 그 5개의 과정이다. K-Move 스텝 사업은 해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희망 기업으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매년 3월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K-Move스텝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K-Move스텝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 교재비, 시험수수료, 항

공료, 비자 수수료(일부)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K-Move에 참여한 학생들은 올해 6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어학, 직무, 교양, 실무 교육 등 과정별 맞춤형 연수 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 일본의 현지 기업에 취업한다.

정도는 학생취업 처장은 “우리 대학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 실무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해왔으며, The Only One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의 대학 교육목표를 실현하며,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더 다양한 해외 취업 우수사례와 해외 취업자들의 수가 급증한다면 우리 대학 학생·취업지원처(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취업 지원 칸에 해외 취업 지원팀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거나 해외 취업을 현재 준비 중인 학우들이라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대학의 해외 취업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류길환 기자  
jyw8284@gmail.com

# 4학년들,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돼!

너의 취업을 도와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동서대 IPP형 일학습병행사업단 단체사진

▷사진출처 - 한국대학신문

우리 대학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대학과 기업 간 인력수급 mismatch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교육모델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의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 연계형 인재 육성 제도다. 이를 통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 훈련을 받아 전공 및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서는 IPP형 일학습병행과 첨단산업 아카데미를 통해 4개 유형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은 마케팅 전략 기획, 생산 관리, 호텔 관리를 포함하며, 첨단산업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 운영 방법은 이렇다. 참여 학생의 4학년 1학기 동안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서 개설하고 운영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OFF-JT 훈련을 실시한다. 4학년 2학기에는 학생과 기업이 상호 매칭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며 일하는 과정인 OJT를 진행한다. 최종 수료를 통한 외부 평가에 합격 시 근무한 기업에 취업하는 운영 형태로 진행된다.

해당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적용 지원금 120만원, 외부 평가 합격 지원금 50만원, 취업 유망 지원금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 현장실무 참여 동안 학생들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청년들이 풀리는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본 사업에 참여한 졸업생이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사를 알려주고자 국제통상학과 졸업생 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대학 4년 동안 다양한 공부를 하며 지금까지의 학업 경험을 돌아봤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 경험이다. 졸업 전에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공과 자신이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일학습병행은 현장 실무와 채용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내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실제 기업의 업무를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며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 경험에 대한 중요성과, 실무 경험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승훈 대학일자리센터

# 한·중·일을 오가는 CAMPUS Asia 개강

동아시아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CAMPUS Asia 개강식

우리 대학 CAMPUS Asia 사업단 및 캠퍼스아시아학과는 3월 16일, 국제협력관 1309호에서 2024년 CAMPUS Asia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강식에는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입생 21명과 학부부 19명이 참석했다. 2024학년도 재학생 및 일반·중국 초·중·고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하여 환영했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CAMPUS Asia 사업에 대한 개요와 3국 공동 운영 교육과정 및 지원 사항, 비교과 프로그램, 유학프로그램 등 CAMPUS Asia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한·중·일 과 학년 대표의 연설도 있었다. 프로그램 설명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평소 본 전공 및 유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학부부와 소통하는 시간이 가졌다.

캠퍼스아시아학과는 2012년부터 4년간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CAMPUS Asia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 신설된 학과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은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통합, 갈등 해소를 위한 동아시아 미래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해, 2010년 5월, 3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3국간 교육 협력 사업’이다.

CAMPUS Asia 사업은 한중일 3국 4개 대학(한국 우리 대학과 일본 리쓰메이칸대, 중국 광둥외국어대, 일본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APU))이 ‘동아시아 글로벌리더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 지원 특화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은 우수한 성과로 시범 사업부터 확장사업까지(2012~현재) 연이어 3번째 선정돼 운영 중에 있다. CAMPUS Asia 사업에 참여하는 3개국 대학 학생들은 한중일 3개국 캠퍼스를 이동하면서 언어(한국어·중국어·일본어)와 3개국의 역사와 문화, 사상 등을 배운다.

CAMPUS Asia 사업에 참여하는 3개국 대학 학생들은 한중일 3개국 캠퍼스를 이동하면서 언어(한국어·중국어·일본어)와 3개국의 역사와 문화, 사상 등을 배운다.

이 중 우리 대학은 2012년 중국의 광둥외국어대, 일본의 리쓰메이칸대와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동아시아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성’ 프로그램(Mode1)을 실시했다. 2016년부터는 17개의 사업단이 본사업에 진입하여 동서대는 리쓰메이칸대와 광둥외국어대와 ‘동아시아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 운영 이동캠퍼스 구성’ 프로그램(Mode2)을 수행했다. 2017년도부터는 ‘CAMPUS Asia 프로그램’을 계승하는 동아시아학과를 신설, 교육내용을 더욱 심화·발전시켰다. 2022년부터는 캠퍼스아시아 확장 사업(Mode3)으로 리쓰메이칸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APU), 광둥외국어대와 함께 ‘동아시아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공동운영이동캠퍼스’를 운영한다.

학년별 수업 내용으로는 1학년 과목 교육에서는 각 대학에서 참여 학생을 20명씩 선발, 상대국 언어와 문화, 역사, 사회 분야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2학년부터는 10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눠 상대국 캠퍼스를 순회하는 이동캠퍼스를 운영. 각국의 언어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영어와 역사와 문화를 습득한다. 3학년은 고급 수준의 어학학습, 심화한 동아시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영어와 역사와 문화를 습득한다. 4학년은 동아시아 관련 졸업논문을 작성한다.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리더스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리더스 특강, 역사 문화 탐방, 어학 집중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3국 공동 운영과정으로 ‘GLLP(Global Living-Learning Program :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한·중·일 학생 아파트형 공동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일 학생이 함께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한·중·일 학생 대상의 공동수업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캠퍼스아시아학과는 ‘동아시아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중·일 3국 대학 공동교육 과정과 3국 학생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국 대학 학부생 각 20명, 총 60명으로 공동캠퍼스를 구성해 3국을 순회(온라인/오프라인)하면서 강의와 듣고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졸업 자격검정을 거쳐 3국 대학 공동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된다. 우리 대학 CAMPUS Asia 사업단은 한·중·일 CAMPUS Asia 사업단 중 우수사업단으로 선정(2019)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사업단 총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2016~2020)을 거뒀다.

송준혁 기자  
sh730688@gmail.com

## ■ 취업 같이 준비해요

### 쉽지 않은 자기소개서 쓰기



▶워크넷 홈페이지

부딪혔을 때, 본인만의 방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경험의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는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워크넷에는 직무별로 자소서에 대한 작성 가이드가 게시되어 있어 도움 받을 수 있다.

기자는 방송영상학과 학생으로 ‘드라마 PD’(스튜디오S)를 확인했다. 드라마 PD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 제작 과정, 섭외, 예산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PD의 필요 역량은 방송 제작 기술 및 지식, 프로그램 연출 지식, 제작 예산 관리를 위한 회계 지식,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책임감이다. 작성을 위해서 작문을 충분히 수행할 역량, 태도가 있어야 하며 SBS 드라마에 대한 장점과 아쉬운 점을 분석해 본인이 기여하고 싶은 부분을 제시해야 한다. 스튜디오는 SBS 드라마 본부와 저회사인 디스토리웍스가 합방하여 설립한 드라마 제작사로 대표적인 드라마 사내 맞선, 보유한 직무 역량 정리, 직무 및 인성 경험 정리, 직무 비전 세우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직무를 찾아야 한다. 직무를 찾아야 직무의 필요 역량과 비전, 가고 싶은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 및 최근 뉴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것이 없는 학우들은 상담을 받아보자. 자기소개서 구성의 핵심은 ‘명확한 지원 동기, 직무 경험, 면접의 기초 자료, 간결함’이다.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뚜렷하고 설득력 있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어 것이다.

김소현 기자  
mylife0936@gmail.com



같이 보는 스포츠 세상

## 한국 야구를 평정하고 메이저 리그로!

야구의 본토 미국으로 향한 이정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



▶ 이정후가 경기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MLB

이정후는 지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단식에서 소감과 각오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KBO 최고의 타자 이정후가 야구의 본토 MLB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해 내고 있다. 이정후는 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메이저리그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한국에서나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2021년 올림픽 갔을 때 좋은 투수들의 공을 치면서 다시 조금씩 물어놓았던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투수들의 공을 매일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될지 '상대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2022시즌 시작했을 때 '올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좋은 성적 기록하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후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잠재우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후. 이정후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가, 자세히 알아보자. 이정후가 어떤 타자인지 야구를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 알 것이다. 천재적인 컨택형 중장거리 히터다. 이정후의

KBO 기록을 살펴보면 7시즌 평균 타율 0.340 출루율 0.407 장타율 0.491을 기록했다. 전설급 타자들의 상징인 3-4-5 슬래쉬 라인에 장타율 0.009 만이 부족한 아주 좋은 기록을 달성했다. WRC+ (특정 장타력)도 144.3으로 매우 훌륭하다. 특히 2루타 243개 3루타 43개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 줬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홈런 개수다. 7시즌 동안 65개로 그리 많은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홈런 개수는 이정후라는 선수를 파악할 때 그리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 야구에는 여러 가지 재능의 구성이 있다. 타자에 대한 부분만 본다면 파워, 반응속도, 컨택, 스피드, 선구안 정도로 스탯을 구분할 수 있다. 이정후를 이 분류에 의해 정의하자면 컨택, 반응속도, 선구안에 장점이 있는 선수다. 특히 컨택 능력과 반응 속도는 이정후의 엄청난 강점이다. 스테이머스가 수치로 기록된다면 100중에 90점 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정후는 4월 21일 기준 MLB 11게임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기록을 보자면 바로 스윙 테이크 비교 지표다. 총 95번 공을 타석에서 상대했다. 그리고 95개의 공중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제구된 공이 45개였다. 그중 체이스존이라고 해서 공 4개~5개 정도가 존에서 벗어난 곳을 말하는데 이 체이스존에 들어온 공이 13개였고 존에서 공 한두 개가 밖으로 빠지거나 존에 걸치는 세도우 존 피칭은 33개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대부분이 유인구에 속하는 체이스존과 세도우 존에 피칭된 공 중 헛스윙은 단 8개에 불과했다. 뛰어난 선구안과, 좋은 반응 능

력을 볼 수 있는 수치다. 그리고 더 좋은 지표는 컨택률이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스윙해서 컨택할 확률은 96%이다. 단 한 개의 공을 제외하곤 모두 컨택을 성공했다. 리그 평균 수치가 8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가 높은 수치이다. 유인구에는 속지 않는데 들어오는 공은 모두 맞다고 보면 된다. 그의 천부적 컨택 능력은 미국에서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그에 더해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맞춘 공의 타구 속도가 95.7마일(시속 153km)로 리그 최상위급이란 것이다. 현재까지 이정후의 타격폼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타격 다소 소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스윙을 안 하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다. 이제 MLB에서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경기를 치르는 입장의 선수다. 생전 처음 보는 투수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스윙 비율을 높게 가지고 안되는 요소다. 게다가 이정후는 1번 타자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을 좀 더 보려는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소극적인 스윙 비율을 갖고 가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 보니 한 가운데 들어오는 공에 대한 스윙률이 다소 낮다. 그래도 삼진율이 아직 낮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히 봐야 할 건 96마일 이상의 빠른 볼 대응이다. 현재까지 빠른 공에는 망설임 없이 맞히는 활약을 높게 잡고 있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강속구 투수가 있다. 이점이 어떤 식으로 발휘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재원 기자 jw03031121@gmail.com

이달의 영화 - 댓글부대

## 여론 조작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 영화 제목 : 댓글부대  
• 영화 감독 : 안국진

댓글부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원작은 장강명 작가의 동명 소설이며 원작은 소설의 모든 내용을 허구로 밝히고 있지만 영화는 실제 사건 바탕으로 다들 기억나는가, 2016년 10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일어났었다. '촛불'은 시민 주도 비폭력 저항의 상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촛불 집회를 처음 기획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이 영화의 서두다. 원작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소재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만, 영화는 이를 기자 임상진(손석구)의 내레이션으로 풀어간다.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여중생 암사 사고'가 발생했지만, 미군들은 무죄를 받는다. 많은 시민이 분노한 상황에 11월 27일 양마 '김기보'가 등장한다. 학원 강사이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였던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대바위에 촛불시위에 나서자는 호소문을 적게 되고, 그 인터넷 글이 퍼져나가게 되며 같은 해 11월

30일, 1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다. 이것이 최초의 촛불 집회인데 영화는 사건을 재구성해 연출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위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그만큼 언론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임상진(손석구)은 사회부 기자로,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제보를 받고 단독 기사를 출고한다. 하지만 다음 날 기사는 연예인 마약 사건에 묻히고, 기사는 오보로 판명돼 한순간 부질없는 기사로 실추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임상진의 기사가 오보가 된 것은 대기업의 언론 조작임을 밝히는 의문의 제보자 '갯밭캣(김동휘)'이 나타난다. 영화는 관객을 혼란에 빠뜨리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댓글부대는 매력적인 소재를 가진 영화지만, 원작에 비해 너무 대중적으로 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설 속 팀 알렘은 일간 베스트 죽들이, 안마방이나 유흥업소에서 여자를 만나는 일그러진 청춘 캐리커처였지만 영화에서는 평면적인 전달 도구에 그치는 듯하다. 그러한 소설을 다 제외했다.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이 추악하게 권력을 세우는 것이 매력적인 작품인데 그것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영화는 필요하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SNS 가짜 댓글 달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여론 조작 및 반란 이 모든 것이 팀-알렘, 갯밭캣(김동휘), 정뽕깡(김성철), 캠택(홍경)의 단 3명이 벌인 일이라면 믿는 게, 모든 뉴스와 여론이 객관적이고 순수하지 않다. 가짜 뉴스만 봐도 사실이 아니지만 진실처럼 믿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 인신공격, 여성 혐오 감정 등을 이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분탕과 편 가르기를 통해 분노와 증오를 증폭시키고 청소년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방법. 간단하다, 전략적으로 작성된 댓글로 논란의 불씨만 던지면 되는 일이다. 폐쇄적인 사이트도 구성원끼리 서로 치고받고 물어뜯으며 자신도 모르는 채 이용당한다.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손쉽게 조종당할지도 모른다. 사람이란 참 신기하다. 영화는 기자와 의뢰인의 대화와 사건으로 구성돼 있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원작 소설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원작 소설 중 일부다. '인터넷을 오래 할수록 점점 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돼. 그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야'.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진짜 그 짧은 글로 상처를 입어요. 웃기죠? 아는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일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사실은 남자 셋이서 돌려쓰는 가장 아이디어인데'. '가장 많이 쓴 방법은 편집자가 쓴 허위 게시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다리 모델이나 가슴 모델을 고용해서 홍보해야 하는 음료를 한구석에 들어간 사진들을 여러 장 찍었다.' 수는 국어 일타 인터넷 강의 강사로 알려진 박광일 씨를 아는가, 그 역시도 수백 개의 차명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로 경쟁 강사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제 별점과 한 줄 평도 믿을 수 없는 시대다. 여론은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화 '댓글부대'는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임상진은 기자인가? 아닌가?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문득, 글을 쓴다  
창작을 돈다

스피커 소리와 모기 소리로 가득찬 방안  
누군가 창문을 툭툭 두드리다  
슬며시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와  
모니터 속 파도 사이로 스며듭니다

무더운 여름밤 찾아온 손님과 함께  
시원한 파도에 몸을 얹으니  
가볍게 마주했던 순간들을 지나  
어느새 그대 앞으로 밀려와 있습니다

그제야 찾아온 손님이 그대인가 싶어  
창문을 활짝 열어 맞이하니  
주르륵 내리던 그대는 어느새 가버리고  
환하게 피어난 무지개 하나가 나를 맞이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괜히 무지개를 원망하며  
명하니 그대를 그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다  
조그만 구름이 눈 앞으로 지나가니  
그제야 그대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그대가 어떤 모습이든  
창문을 열어 환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추적이는 여름 비여도 다 지나간 뒤의 무지개여도 (류길환)

TALK

생활/진로/취업  
고민이 있다면?

P 동서대 대학일자리센터

1:1 진로/취업 컨설팅  
청년 고용 정책 및 혜택 안내  
IPP형 일학습병행제  
K-MOVE스쿨 연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051-320-2716

이벤트 종료!

십자말풀이

지번호 당첨자

간호학과 박\*리 학생  
이\*담 학생  
차\*나 학생  
연기와 최\*혜 학생

김길 학생 사물품  
기타물 2개는 블로그에 올리실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바뀐 신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제는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때

## 어버이날 선물 추천



▶세티드 핸드크림 3종

▶사진출처 - V&A 공식 홈페이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날이 많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또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까지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기원하는 기념일이 많은 뜻깊은 달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하다. 5월 가정의 달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UN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제정했다.

이제는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기보다는 어버이날에 선물을 드리는 게 더 익숙할 때다. 그러나 때때로 선물을 고르기도 불편하다. 어른들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고르는 일이란 아직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기사를 읽기를 바란다. 어른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100점 만점짜리 선물을 소개해 주고자 하니 말이다.

### # V&A

V&A는 컨템포러리 아트&뷰티 브랜드로,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경의 V&A를 따서 만든 영국의 V&A 박물관의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패키지나 포장지에서도 외국의 성당이나, 우리나라의 나전칠기를 보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긴다.

화장품부터 워시 제품, 핸드크림, 액세서리,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파는 브랜드이니 취향에 맞게 선물을 조합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 제품을 고르기 힘들다면 이그중에서도 선물로 드리기 좋은 제품 몇 가지를 추하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V&A는 고급스러운 제품 패키지가 특징이니 그것을 잘 살린 제품을 선물하는 게 좋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의 라벨링을 선보이는 샌티드 라인의 핸드워시, 핸드크림, 바디워시, 바디로션 제품을 추천한다.

남녀 구분 없이 선물 가능한 제품이나 온 가족 용도로 선물하면 좋겠다. 남녀 구분 없이 선물 가능한 제품이나 온 가족 용도로 선물하면 좋겠다. 남성을 위한 맨즈



▶레이디스 리선페이싱 필

▶사진출처 - 올리추얼 공식 홈페이지

라인도 있으니 부모님 두 분께 각각 선물해 주기도 좋다.

### # 올리추얼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올리추얼이라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다. 부모님이 노화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오히려 한 살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비싸지만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 열심히 관리하고는 한다. 그런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올리추얼의 레이디스 리선페이싱 필 제품을 추천한다. 명품 화장품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이다.

또 단순히 좋은 제품력을 넘어 홈에스테틱 감각이 더해져 귀한 시간을 선물 받는 느낌도 들 것이다.

홈에스테틱 감각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관리 후 티 타임은 필수다. 관리 후 가지는 티 타임 하나가 고급진 케어를 받은 느낌을 주며, 몸을 나른하게 만들어 준다. 올리추얼에서 판매하는 티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미라클타임이라는 제품으로, 단순 티 제품이라기에는 약간의 가격대가 있지만 그만큼 정성이 가득 담긴 게 느껴지는 제품이다.

### # 스카프

어른에게 선물하는 패션 제품으로는 아무래도 스카프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백화점에 가도 스카프 패키지 제품을 판매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 성의가 담긴 듯한 제품을 몇 개 소개해 주고자 한다. 에르메스 트윌리는 가격대도 에르메스인 것에 비해 부담스럽지도 않을 편다. 대학생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급진 선물이라 생각한다. 또 에르메스 패키지가 주는 로망이 있기 때문에 선물로 추천한다. 스카프뿐만 아니라 헤어 밴드, 머리 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 라인이기 때문에 참고하길 바란다.

에르메스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 부모님의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면 토템이라는 브랜드를 추천한다. 고급스러우면서도 활용도가 좋아 연령대와 상관없이



▶에르메스 Eperon d'Or Bandana 트윌리

▶사진출처 - 에르메스 공식 홈페이지

선물할 수 있으며, 에르메스 트윌리의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이들에게도 부담감을 낮춰 주는 브랜드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무난한 디자인이라 수수한 패션을 선호하는 부모님에게도 선물하기 좋을 것 같다. 헤어밴드용, 액세서리용으로 크기가 다양하게 나오니 구매하기 전 제품 크기를 꼭 체크하길 바란다.

계절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스카프보다는 활용도가 높고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머플러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겐 구찌 머플러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으며,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선물로 드린다면 부모님이 만족하실 듯하다.

### # 용돈 박스

아무리 그래도 무난하면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은 현금이다. 그러나 봉투를 두둑하게 채울 자신이 없으면 용돈 박스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 다음소프트 조사 결과, 부모님이 받기 싫어하는 선물 순위 상위에 꽃다발과 케이크가 있다고 한다.

진부하기도 하고,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전으로 이 선물에 용돈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 뻔한 선물에 반전을 더해 감동적인 선물을 전해 보자. 용돈 박스는 꽃, 케이크와 함께 구성할 수도 있고, 문구를 각인할 수도 있으니 개인의 센스와 각각의 가정마다의 특징을 담아 박스를 구성해 보면 좋을 것이다.

### # 편지

굳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라도 진심이 담긴 편지 한 장이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사실이다. 여태껏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던 사랑과 애정을 어버이날을 기회 삼아 작은 선물에 담아 선물해 보자.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여 준다면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김규리 기자  
Orlarbfi@gmail.com

# 민석 축제를 즐기는 완벽한 방법

## 중간고사를 끝낸 당신, 이제는 즐겨라!



▶2023 민석 축제



▶푸드트럭 앞 줄 지어진 모습



▶래퍼 '우원재'가 2023 민석 축제에 참석

어느덧 벚꽃이 지고 중간고사도 끝이 났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 2일은 민석 축제, 5월 3일은 체육대회가 열린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축제와 체육대회.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고생한 당신에게 우리 대학의 민석 축제를 즐기는 완벽한 방법을 소개한다.

### # 타임테이블

공연을 즐기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축제 타임테이블을 확인하는 것이다. 타임 테이블이란 시간대 별로 계획이 적힌 표를 의미하는데 축제 타임 테이블에서는 축제의 세부 사항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민석 축제 타임 테이블에 따르면 13시에 본격적인 부스가 시작해 22시에 축제의 막을 내렸다. 미리 타임테이블을 확인하고 관심이 있는 콘텐츠들 놓치지 않게 자신의 일정과 맞추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하나의 팁을 주자면 축제의 모든 콘텐츠를 즐겨보자.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자.

### # 부스와 푸드트럭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다양한 부스와 푸드 트럭이다. 우리 대학의 다양한 곳에서 준비한 부스를 즐겨보자. 다양한 부스를 즐기다 보면 배가 출출해진다. 그럴 때 푸드트럭을 이용해 보자. 지난 축제에 따르면 닭꼬치부터 아이스크림까지 많은 푸드코트가 즐비해 있었다. 이것저것 취향에 맞게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도 놓치지 말자.

### # 역대 라인업

매해 많은 유명 가수가 민석 축제에 참석해 더욱 즐거운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릴러팔츠'부터 '우원재', '사이먼 도미닉'까지 험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래퍼들이 멋진 무대로 관객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또 베테랑 가수 '거미'와 '박해원'도 각 대표곡을 부르며 한층 더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다. 마지막으로 축제 퀸 '프로미스나인'까지 수많은 연예인이 민석 축제를 빛내주었다. 올해는 어떤 유명 가수가 민

석 축제에 참석할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올 수 있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를 기다리길 바란다.

### # 동서 가요제

또 하나 축제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인 '동서 가요제'를 놓치지 말 것. 학우들의 뛰어난 노래 솜씨를 들으며 흥취하며 따라 부른다면 더욱더 신나는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혹여나 이번 동서 가요제에 신청을 망설였다면 다음 민석 축제 때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상품과 상급도 받아보자!

### # 공연

마지막 축제의 피날레, 공연이다. 공연이라 하면 학우들과 연예인이 준비한 공연들이 있다. 먼저 학우들이 준비한 공연을 먼저 즐겨보자. 민석 축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을 공연에 큰 박수로 화답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어떤 공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것도 축제의 재미 요소 중 하나이다.

### # 함께

친구, 연인, 선배, 후배, 동기까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민석 축제. 다 같이 축제의 분위기를 즐겨보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축제의 분위기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는가. 후에 행복했던 민석 축제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기억하기 좋은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 # 안전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이다. 안전부터 이루어져야 축제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무사히 즐길 수 있다.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함께 주위를 살피며 2024 민석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안전한 축제를 만들어보자.

### # 마무리

2024 민석 축제는 단순히 한 학기의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운 경험과 소



▶공연을 기다리는 학우의 모습

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첫 축제를 맞이할 신입생부터 마지막 축제를 보내줄 졸업반까지 모두가 100% 즐길 수 있길 바란다. 함께 축제에 참여해 우리

대학의 매력을 만끽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보는 건 어떨까?

조수빈 기자  
1204bin@gmail.com





임광산 맑은 소리

### 집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한재리 (3학년·치위생학과)

이른 아침, 집에서 나와 직장 혹은 학교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타고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향한 사람들이 고된 일상을 마치고 사람들은 속속히 고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때, 출근시간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실어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피곤해 버스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로 3년째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런 저는 2개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집은, 약 20년간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던 집이고 두 번째 집은, 친척들과 함께 대학공부를 위해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나는 2개의 집에 대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힘들고 고되거나, 마음이 지칠 때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한 달에 한번, 혹은 두 달에 한번씩 분가에 가게 되면, 분가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풍다풍다 거러지고, 고요한 집에 갈 생각이 설레어 집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또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뭔가 모르게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포근한 느낌과, 나의 가족들이 있는 집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분가에 가서 느끼는 휴식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 할 만큼 안도감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몸이 아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갈 힘조차 없을 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척들과 같이 사는 집이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았고, 문이 닫힌 방 안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몸이 아왔다면, 혼자서 아픈 것을 끄고 참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몸이 아프다면, 항상 옆에서 관찰하질 때까지 간호해 주셨던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유달리 엄마가 보고 싶었고, 엄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플 때 의지할 사람이 없고 혼자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느끼게 해주었던 그 날, 그날따라 저의 진짜 집이 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혼자사는 사람도 있고, 룸메이트와 같이 살아가기도 하고, 또 친척, 가족 등 여러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집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휴식, 나의 공간'일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집에 대한 존재는 든든한 나의 편들이 내가 바깥공간, 사회에서 고된 일을 끝내고 밤늦게, 혹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더라도, 나를 반겨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저처럼 타지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가족들이 보고싶고, 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나의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죽비소리

### 부모님의 사랑

오현지 (2학년·방송영상학과)

당신은 어떤 사람을 배웠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든 스스로 터득한 방법으로도 다양하게 사랑을 배운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은 태어나면서 먼저 배운 사랑이다.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고결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한다. 그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서로가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말도 못하던 우리는 걸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할 쯤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엄마가 내게 준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점점 더 커가면서 사춘기 시기에는 반대가 된다. 똑같은 사람이 과도한 사랑으로 느끼게 돼 부담스러워진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도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나는 부모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값지게 느껴진다. 사랑이 다 비슷하니, 겪어왔던 다 같더라. 이런 생각들을 했던 시기를 반성하게 된다. 부모의 사랑은 죽을 때

까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유를 묻는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자. 태초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준다. 무력한 존재임에도 대가없이 사랑을 준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 행위는 비이기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타자적인 사랑의 형태다. 우리가 어리광을 부리면서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었다. 나이를 먹어가며 사람 한 명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며 그 뒤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은 고되고 쉽지 않을 일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안다. 그 때문에 이 사랑이 더 고결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이 글의 결론은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정확히 말하면 값진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다.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다. 다른 형태

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지탱할 수 있는 힘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말로 그들의 행동과 우리에게 쏟았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지금까지의 삶을 지탱하며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것도 모두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밀어줬기 때문이다. 값지게 사랑을 먹은 만큼 삶이 윤택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사랑을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쉽게 생겨도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에게 귀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는 사랑을 아낌없이 해보자. 받은 만큼 주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을 당시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지내는 방을 둘러보라. 당신이 사랑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가? 모두 사랑이 존재했기에 그 자리에 함께 한다.

### 사설

### 저출산, 이민자 유입이 답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정치 양극화? 물가 상승?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는 건 바로 저출산이다. 작년 4분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무려 0.6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이며, 한국 자체 기록도 경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고, 딱히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저출산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OECD 국가들 평균 출산율 역시 2명을 못 넘고 있다.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데에 출산율이 2.1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감소는 많은 나라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봐도 손꼽도록 저조한 출산율이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따라서 높은 집값, 교육열을 통한 교육비 부담, 그리고 이러한 여러 문제를 통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힘들고, 해결된다 해도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노동 가능 인구를 늘리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 바로 이민자를 들여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를 정말 해결하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새로 유입된 이민자 국민들의 출산으로 장기적인 인구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다. 캐나다와 독일 같은 국가의 경우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 우선 가장 큰 단점은 그들이 우리의 문화와 법을 존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융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똑같이 그들의 방식대로만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이민자들의 경우 국민의 권리는 요구하며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특히 이슬람교와 같은 정치적인 종교를 가진 이민자의 경우, 자신들의 신념이 나라 법보다 위에 있는 듯 행동하기도 한다. 이는 이민자를 들일 때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또, 앞선 얘기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치안 문제가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 법의 경우 이민자들이 혼동하여 합부로 법을 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이민자들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합부로 불법적인 일이나 범죄를 일삼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출신 국민들의 영향력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이민자 수용은 인구 증가를 불러 오고 이는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민자 출신들이 늘어날수록 현재 우리 국민들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민자들을 들인 이후, 현재 고령 인구들의 유출이 있을 때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표를 얻기 위해 이민자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 것이고, 본래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들이 있다. 국가 또한 그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저출산을 통한 인구감소가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변화의 흐름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특성상 출산을 위한 여러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가정을 꾸려야하는데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심지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저출산의 해결법으로 이민자들을 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지도 모른다. 이대로 인구감소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길이 조금은 험준 길이라도 나라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필히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힘든 상황 속에서 공존하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 목회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눈을 보면 그 농부를 알 수 있고, 집을 보면 집주인을 알 수 있으며,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제자를 보면 그 선생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제자를 배울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마태복음 7:20)"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

### 참선생의 길

리킨 제자는 점차 나라의 주력 세대가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다. 곧 어떻게 가리키는가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 "나는 어떤 선생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제자를 길러내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세대를 살펴보면 과거 선생님들의 가리킴이 어땠는지 유추가 가능하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골에 가면 양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목자가 양무리를 이끌고 다닐 때 목자는 뒤에서 양을 치지 않고 앞에서 양무리를 이끈다. 놀랍게도 그 목자의 양들은 자기 주인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양들과 절대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은 양을 우리 밖으로 내놓은 후에 앞서 가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른다(요한복음 10:4)고 하셨다.

또한 예수 자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비유했다. 목자가 양들을 앞장서서 이끌듯 예수 역시 앞장서서 이끄는 분이시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스승으로 진히 사셨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을 이전엔 스승의 가리킴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장서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 뒤에 제자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예수의 가리킴은 삶을 통한 가리킴임을 성경은 보여준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태복음 16:24)"

성경은 참 스승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 곧 예수의 삶이다. 그것은 다음 아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구체

적으로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래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참 스승이 될 수 있다.

세상은 살기 좋아졌고, 편리해졌지만 깊이가 없는 시대를 보는 듯하다. 우리를 가리켰던 선생님의 세대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 어른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요즘 우리 세대가 밟지 못한 어려운 길이가 있었다. 그 까닭은 다름 아닌 예수의 십자가 부인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했고, 또 제자를 위하고 타인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제자들이 마치 사냥누각과 같이 태풍이 불면 단번에 무너져 버리는 삶이라면 과연 잘 가리켰다고 할 수 있을까? 5월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 때에 참 선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반성해 보도록 하자.

### 기자칼럼

### 쏟아지는 연예뉴스 속 마주해야 하는 사실

지난 두 달 동안만 해도 터진 연예 이슈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가법계는 열 열부터 터져서 연예인 학교폭력 이슈까지. 사람들이 쉽게 흥미를 갖고 반응할 수 있을 법한 이슈들이 수없이 기사화됐다. 연예인들이 사생활 보호에 신경 쓰지 않는 탓일까? 혹은 유난히 지난 두 달 동안 연예를 많이 시작한 걸까? 연예 이슈가 외르크 쏟아지는 시기에는 이유가 있는 법.

전부터 연예 이슈는 정치 이슈를 덮기 위해 이용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됐다. 올해처럼 특히나 연예 이슈가 줄줄이 많이 터진 해를 언급해 보자면 2014년이다. 다들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아마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4월 이후로 5월부터 8월까지 진상규명에 관한 부정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많은 연예인의 열애설이 희석됐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구조 소식뿐만 아니라 세월호에 대한

논란,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 참사에 대한 주요 원인 등 우리가 꼭 집중해야 했을 진실들이 가법계 타오르는 인기 아이돌, 배우의 열애설에 묻혀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많이 어렸던 나 역시도 진상규명보다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연예에 기사에 더 쉽게 반응하고 흥분했다. 이런 국민들의 반응을 노리고자 정부, 나라, 혹은 고위직 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전히 연예 이슈를 사용하고는 한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도대체 무엇을 덮고자 이렇게 많은 연예인이 희석된 걸까?

대표적으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번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현 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 주는 자리였다는 뜻이다.

즉,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국회 재적 의원 2/3 비율인 20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으나, 없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이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의석수 20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 국회 의결 및 국회의원 재명기 가능해지며, 대통령 탄핵 소추 처리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총선 기간에도 전혀 상관없는 연예 소식을 마구 터뜨린 게 아닌가 싶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 정부가 적극 동의한 것이라거나, 백두산의 중국 부분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백두산의 중국면 '장바이산'으로 등재된 것, 4월 16일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등 많은 정치 사회적 사건들을 덮기 위해 연예인들이 희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사전 투표 참여율 31.28%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투표율로는 최고 기록이자, 지난 198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인 최

종 투표율 67.0%로 잠정 집계됐다. 아무리 연예 이슈가 터진다고 한들 국민들은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선거 날만을 기다린 것이다. 물론 특정 지역은 여전히 현 정부가 당선됐으나, 지지율이 70% 이상이던 지난과는 달리 50%대에서 경쟁을 했다는 것도 집중해야 할 사실이다.

나는 연예 뉴스가 뜰 때마다 사회면을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진실은 알고자 하면 보이고, 알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게 된다. "무지는 큰 죄다(담주 3:13-17)"는 말이 있다.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2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20대를 위한 정책을 공약에 걸지 않는다. 물론 더 흥미로운 것은 가법계 소비할 수 있는 연예 이슈들이 맞으나, 나를 위해서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김규리 기자  
0rlarbf1@gmail.com





# 담배 연기 싫어요!

## 지켜지지 않는 금연구역



▶우리 대학 금연장소에 버려진 담배꽂초



▶금연구역 포스터



▶김해대학교 부스 사진

▶사진출처 - 김해대학교

SNS상에서 이야기되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눈살이 찌푸러지는 삼 대장이 있다. 팔짱을 끼고 걸으며 좁은 인도를 막는 사람들, 길 위를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그리고 길 위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다. 길거리에서 쫓기는 담배 냄새와 연기는 비흡연자들의 기본뿐만 아니라 건강을 같이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삼 대장 중 가장 싫어하는 순위가 높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은 내부 전체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교는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이 경우 흡연실을 설치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배려했을 수 있다.

흡연실 설치에 보건복지부령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

리에 설치해야 한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이 같은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흡연실을 뒀을 수 있는 지붕이나 바람막이, 천막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

우리 대학 내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종종 볼 것이다. 물론 향아리를 나눠서 지정된 자리에서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 또한 그 장소들도 외부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 향아리 근처 넓은 범위가 암묵적으로 흡연구역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접하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장소들로 필자는 UIT관 1층 입구, 스퀘어타워 플라자 민석 동산 쪽 입구, 뉴 밀리니엄관 1층 주차장, 체플 입구가 떠오른다. 그곳을 지나는 학우들은 맡기 싫은 담배 냄새를 맡은 적이 종종 있

을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흡연 구역과 흡연 시설의 부족이라 봤다.

그래서 학우들이 자주 지나가는 외부 장소에 향아리만 놓는 것이 아닌 흡연 부스를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어 흡연 부스의 유형과 특징 또한 흡연 부스가 설치된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가져와 봤다. 흡연 부스의 유형으로는 밀폐형-강제 배기 방식(정화 배출), 밀폐형-강제 배기 방식(단순배출), 개방형-자연 환기 방식이 있다.

밀폐형-강제 배기 방식(정화 배출)의 특징은 밀폐형으로 폐쇄된 형태의 흡연 부스로 제 연기를 이용해 담배 연기로 오염된 실내 공기를 정화 후 배출하는 방식이다. 실내의 오염된 담배 연기를 정화해 배출하는 방식이기에 부스 주변에서의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돼 담배 연기가 외부로 방출될 때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지상층 설치에 매우 유리하다. 자연 환기 등의 여파에 의한 공기 재순환 및 일부 배기로 정화기기의 필터세척, 교체관

리 등으로 인해 높은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하다.

밀폐형-강제 배기 방식(단순배출)은 별도의 여과장치 없이 송풍기 등의 배기장치를 통한 환기 방식으로 담배 연기가 외부로 방출 시 주위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방식이다. 장문이 개폐되지 않는 고층빌딩의 중간층 흡연실 등에 적용 시 유리하나, 실내에 설치하므로 장비 소음 및 설치공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방형-자연 환기 방식은 흡연 부스 벽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한 형태의 흡연 부스이며 별도의 담배 연기 정화 및 환풍 장치 없이 공기의 자연이동을 이용한 환기하는 방식이다. 개방된 형태의 흡연 부스 특성상 담배 연기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부스 주변의 간접흡연이 발생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 우리 대학은 굳이 따지자면 개방형 형식을 따르고 있는 흡연 부스를 운영하고 볼 수가 있고 이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폐쇄형 형식의 담배 부스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교는 어딘지, 또 운영실정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선 김해대학교, 인천대학교, 서경대학교, 한양대학교 이외의 등등 다수의 대학에서 폐쇄형 형식의 흡연 부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위 대학을 제외하고도 다른 대학에서는 천장이 열려있는 오픈타입 형식의 부스, 한 면은 열려있고 3면을 막은 부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가 잘 된 대학들도 학우들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해당 대학 학우 중 흡연자는 "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옷에 담배 냄새가 밴다" 비흡연자는 "부스 밖에서 피는 학생들 때문에 건물 근처의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부스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평이 나오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제도나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문제

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양보해야 문제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양보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 흡연권이 '별다른 제약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라면 흡연권은 '비흡연자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호소할 수 있는 권리'다.

흡연권이 흡연권보다 기본권 측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흡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 즉 흡연자들의 권리 보다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우선 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우들도 흡연은 좋지만, 비흡연자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진 채로 흡연을 하면 지금의 불만들은 조금씩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류길환 기자  
jyw8284@gmail.com

# 22대 총선 결과가 앞으로 미칠 영향은?

## 집권당 역대급 참패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장면

###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전체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대와 30대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그레이트 총선'이었다. 노년층의 투표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암묵적인 국민 투표로 여겨졌던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가늠하는 기회기도 했다.

### #여당의 역대급 참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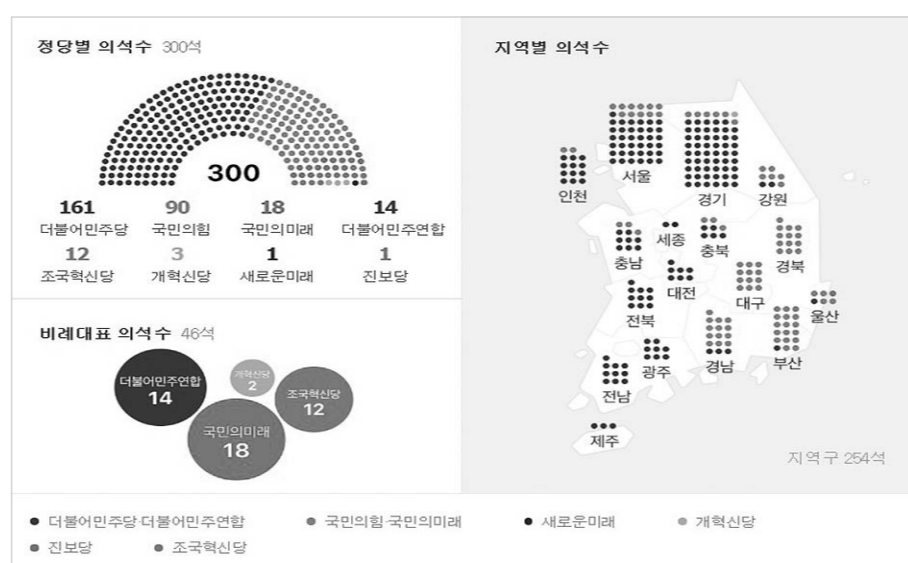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 한다. 여당(국민의 힘)은 대통령과 함께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감시한다. 여당은 대통령을 도우며 나랏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때문에 각 정당은 여당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이라도 국회의원 수가 야당보다 적으면 큰 힘을 발휘하지 어

렵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가?'가 정당의 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4월 11일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얻었다. 국민의 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 참패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여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들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홍사표가 이어졌다.

### #참패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이처럼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여당이 패배한 것은 야



▶22대 총선 결과

▶사진출처 - 네이버

권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 및 불거와 같은 민생 현안이었다. 선거 막판에 들고 나왔던 '875원 대과' 논란에 대해 야가, 윤 대통령이 방만한 마트의 대과 가격은 정부의 납품 단가 지원 등 할인인 더해진 가격이었지만 야권은 윤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몰아붙였다. 또한 세 번이나 비대위를 꾸린 여권 내부 분란(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이종석 전 국방부장관 호주 대사 임명)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힘이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게 되며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이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거센 반대에 자주 부딪혔다.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율은 20.2%로 이전 정부의 의결률 6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야당과의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도 더 이상 추진 동력은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 #외교 정책은 어떻게?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에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반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긴장된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민주주의 정상회담 개최, 가치 기반 외교 촉진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려던 윤 대통령. 이제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거하는 동안 대안 해법과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중점을 주장해 왔기에 접근 방식이 극명하게 대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과제-저출산

현재 한국은 경제 성장 둔화, 높은 부채 수준, 생산성 저하, 노인 인구 증가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열된 정부와 지속적인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긴급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타협하고 과감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선택한 제 1호 공약은 '저출산 대책'이었다.



▶출구결과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출처 - 뉴스1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합쳐진 결과지만 대부분은 높은 생활비와 낮은 삶의 질에 대한 한국 젊은이들의 좌절감으로 귀결된다. 현금 지원이 정부의 접근 방식이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에 돈을 쏟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부모가 아이의 생애 주기에 맞춰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주택을 통해 청년 주거에 맞춰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주택을 통해 청년 주거에 맞춰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의 과제-청년의 현실

청년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팬텀 일자리 부족이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자영업인지 프리랜서인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전국민고용보장제의 빠른 도입과 특수소득 보장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청년 개인이 진로를 설계하기 어렵다. 일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있지만 청년

들의 일자리를 대규모 만들어서 일 경험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합쳐진 결과지만 대부분은 높은 생활비와 낮은 삶의 질에 대한 한국 젊은이들의 좌절감으로 귀결된다. 현금 지원이 정부의 접근 방식이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에 돈을 쏟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부모가 아이의 생애 주기에 맞춰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주택을 통해 청년 주거에 맞춰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 #앞으로의 한국

최근 3월 제 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5월에는 AI 안전 정상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BBC 코리아  
LSEG, time, 프레스인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